

---

#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sup>1)</sup>

김은중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

---

핵심어: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폰토 피코 체제, 참여적이고 주체적인 민주주의, 21세기 사회주의

우리는 이 나라에 극장을 많이 지을 필요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이 나라의 정치관 자체가 최고의 무대였기 때문이다. 정치관의 무대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그것은 미술사의 모자 속에서 나왔다. 매일매일 벌어지는 미술사의 속임수에서 나왔다. 석유가 쏟아지면서 베네수엘라의 천지가 개벽(開闢)했다. 국가는 천우신조의 운명을 타고났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후보자들은 현실을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자살행위와 같다. 국가는 현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는 관대한 미술사이고, 정부가 저지르는 거짓말 주머니에 희망을 채워주는 미술 램프의 거인이다. 석유는 끊임없이 환상을 보여준다. 석유는 신화를 만드는 힘을 가졌다. '위대한 베네수엘라'를 외쳤던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Carlos Andrés Pérez)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는 미술사였다. 그는 마르코스 페레스 히메네스(Marcos Pérez Jiménez) 대통령의 미술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 만큼 우리에게 멋진 미술을 보여준 미술사였다. 페레스 히메네스는 진보의 꿈을 범령으로 만들었지만 나라는 진보한 것이 아니라 비만해졌을 뿐이다. 페레스 히메네스의 공연은 처음 보는 공연이었고, 안드레스 페레스의 공연은 두 번째 보는 공연이었지만 그의 공연이 더 짜릿했다.

-호세 이그나시오 카브루하스(베네수엘라 극작가)

---

1) 본고는 『진보평론』(2013년 여름, 제56호, 150-173)에 실린 글을 다듬은 것이다.

## 1. 베네수엘라, 친차베스와 반차베스로 갈라진 나라

‘우고 차베스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친차베스주의자인가요, 반차베스주의자인가요?’ 베네수엘라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베네수엘라는 친차베스와 반차베스로 나뉜다. 하워드 진은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고 했지만 차베스에 관한 한 베네수엘라 안에도 바깥에도 중립은 없다. 양극단을 벗어나서 차베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차베스에 관한 찬반은 단순히 정치적 의견 차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사람의 존재론적 차이로 귀결되기도 하고 인식기능, 도덕적 저열함, 무신경한 물질적 이해관계의 문제로 여겨지기도 한다).

친차베스주의자에게 볼리바르 혁명은 급진적 혁명이고 근본적으로 역사를 변화시키는 혁신적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며, 라틴아메리카를 통합시키고, 제국주의에 반대한다. 에너지 국유화 정책을 한 걸음 더 진전시켰으며, 경제는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제 석유는 베네수엘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차베스는 역사에 남을 지도자이고, 구원자이며, 볼리바르의 현신이다.

반면에, 반차베스주의자에게 볼리바르 혁명은 사기이고, 졸렬한 모방품이며, 과거의 부르주아지의 자리를 볼리바르주의자들이 차지한 것일 뿐이다. 역사적 변화가 아니라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렇고 그런 변화들 중의 하나이다. 석유 정책은 재앙이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차베스 정권도, 경제도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베네수엘라는 식량의 75%를 수입하고 있으며, 석유를 포함해서 모든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차베스는 석유자원에 기반을 둔 페트로-포퓰리스트(petro-populista)이고, 수다쟁이이며, 1992년 실패한 쿠데타의 주역일 뿐이다.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전선은 시정에 떠도는 정치적 의사 표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베네수엘라를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는 양

분 전략이 차베스가 변혁을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용한 전략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차베스주의가 베네수엘라에 남긴 정치적 유산이라고 한다. 베네수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베스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차베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를 이해해야 한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를 변화시켰지만 베네수엘라는 차베스를 탄생시켰다. 친차베스주의자들과 반차베스주의자들은 동일한 추정과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차베스를 둘러싼 동일한 추정과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20세기 베네수엘라의 역사적 구조의 산물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에서 역사에 대한 성찰은 흔히 누락된다.

## 2. 마술사의 나라가 된 사우다-베네수엘라

제사(題詞)로 인용한 카브루하스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석유가 쏟아지면서 베네수엘라의 하늘과 땅은 새롭게 열렸다(後天開闢). 석유로 얻은 국부 덕분에 국가는 마술을 부리는 대통령으로 의인화되었다. 마술사가 눈속임을 통해 현실을 바꿔치기하듯이 대통령은 모자 속에서 신기한 것들-공장, 호텔, 고속도로, 헌법-을 끄집어냈다. 석유와 더불어 베네수엘라는 마술사의 나라가 되었다. 대부분의 사회과학자가 20세기 베네수엘라의 역사를 유럽의 국가를 해석하는 범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막스 베버의 합리성이나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으로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마콘도(Macondo)를 분석할 수 없는 것처럼, 마르크스주의 분석을 포함해서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유럽의 사회과학으로 마술사의 나라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베네수엘라를 분석하면서 토지를 빼놓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이다. 마르크스의 지대론이 가치의 원천이란 자연이라는 명제를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마르크스는 토지를 단순히 토지로 본 것이

아니라 자연의 힘으로 보았다. 20세기 베네수엘라의 경우에 토지는 국가이자 사회이고 마술사가 된 대통령이 행사하는 힘의 원천이다. 토지(자연의 힘)를 빼놓으면 베네수엘라의 20세기 역사를 이해할 수 없으며 500년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라틴아메리카(더 넓게는 남[南])에 대한 식민주의는 노동력의 착취이면서 자연의 착취였고, 가치의 추출이면서 자원의 추출이었기 때문이다. 마술의 나라는 곧 카리스마를 가진 마술사의 나라가 되었다. 마술의 나라와 카리스마를 가진 마술사는 닭과 달걀의 관계처럼 선후를 따질 수 없는 상생의 관계이다. 카리스마를 가진 마술사는 눈속임의 기술을 통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진짜 권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까지, 정확히 말하자면 1989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정치학자들은 베네수엘라를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나라라고 평가했다. 1960~70년대 베네수엘라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나라들과 전혀 다르게 보였다.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고 주요 수출품은 커피나 설탕, 바나나가 아니라 석유였다. 미래는 희망차고 과거와는 결별한 것처럼 보였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재벌이면서 장관직을 두 번이나 역임했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창설을 주도했던 후안 파블로 페레스 알론소(Juan Pablo Pérez Alonso)는 베네수엘라를 ‘사우디-베네수엘라’라고 불렀다. 베네수엘라가 예외적 민주주의(exceptional democracy)를 구가했던 기간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더 오래된 민주주의는 근대화를 앞세운 군부의 폭력적 쿠데타로 무너졌다. 1964년부터 1976년까지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우루과이, 칠레, 아르헨티나에 군부 독재가 들어섰다. 그러나 외채 위기가 라틴아메리카를 덮었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치적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에콰도르(1979), 페루(1980), 아르헨티나(1983), 브라질(1985), 우루과이(1985)가 차례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정치학자들에게 수수께

끼 같은 예외로 인정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는 ‘질서와 진보’라는 가혹한 처방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군부 독재가 물러간 자리에 들어선 민주 정부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로 묘사되었다.

핵심적 이슈는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나라들에 베네수엘라의 부르주아지 계층모니를 회복시켰던 조건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라는 점이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조건들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과 베네수엘라 신드롬을 만든 요소들의 등장이다. 베네수엘라 신드롬이란 부르주아지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정통성, 엘리트 간의 합의, 민주주의를 점진적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보류하는 것, 좌파를 무력화시키는 것,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달리 말하자면, 베네수엘라의 경우처럼 ‘스스로 제어하는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추세가 뚜렷이 감지된다는 것이다(Cammak 1986,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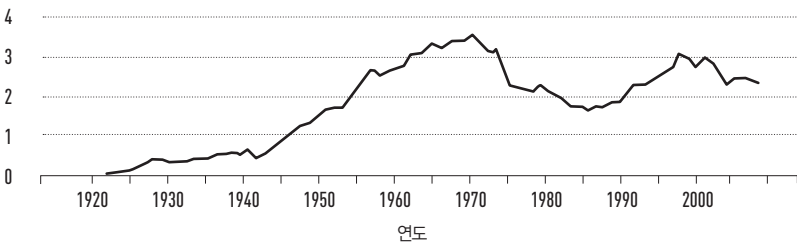
그러나 1980년대 말-1990년대의 경제위기와 예외적 민주주의를 지탱하던 양당 체제가 붕괴되면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대단히 허약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음이 드러났다. 평가와 현실 사이의 불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 베네수엘라를 변화시킨 세 번의 역사적 변곡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변곡점은 후안 비센테 고메스(Juan Vicente Gómez) 대통령의 독재 정권(1908~1935)이었고, 두 번째 변곡점은 군인 출신이었던 마르코스 페레스 히메네스 대통령의 군부 정권(1948~1958)이었으며, 마지막 변곡점은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의 첫 번째 집권 시기(1974~1979)였다. 비센테 고메스에서 안드레스 페레스까지 베네수엘라 역사는 세 번의 중요한 변화를 겪었지만 석유지대로 근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베네수엘라에 석유 시대가 열린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암운이 드리운 비센테 고메스 집권 시기였다. 1914년 로열 더치 쉘의 자회사인 캐리비언 페트롤리엄(Caribbean Petroleum)이 석유의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면서 비센테 고메스 정권은 민간 투자자에게 채굴권을 부여했다. 정부는 정해진 기간 동안 탐사와 채굴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일정한 사용료를 받았다. 석유로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 정부는 상대적으로 값어치가 없는 농지를 넘겨주거나 마라카이보 만(灣)에 시추공을 박을 권리를 부여하는 몇 장의 공문을 써주면 되었다. 석유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였다.

석유의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자 비센테 고메스 정권은 법을 개정하여 채굴권자에게 탐사권과 채굴권만 부여하고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시켰지만 채굴 가능한 토지 면적과 개발 기간을 연장시켰다(1922년). 석유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1929년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미국 다음으로 많았고 석유 수출량은 세계 최대가 되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은 대공황을 거치면서도 계속 증가했고, 194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생산량은 가파르게 상승했다(그림 1) 참고).

| 그림 1 |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1918년~2007년)

일일생산량(단위 백만배럴)



자료 | US Department of Energy,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Annual Energy Review 2007 (<http://www.eia.doe.gov/emeu/aer/>); Jorge Salazar-Carrillo, Oil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Venezuela, New York: Praeger, 1976; Edwin Lieuwen, Petroleum in Venezuela: A History, New York: Russell & Russell, 1967.

석유가 발견되기 이전의 베네수엘라는 매우 허약한 나라였다. 관료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고, 중앙은행과 독립적인 사법부조차 없었으며, 정치는 지방 수령인 카우디오(caudillo)가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석유가 쏟아지면서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바꾸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 첫째, 정부가 석유에 관한 협상권을 독점하면서 권력이 민간에서 국가로 넘어왔다. 상대적으로 농업은 피폐해졌고, 전통적인 지주 계급은 몰락했다. 둘째, 베네수엘라의 도시화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보다 늦게 시작되었지만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산업화는 지연되었다. 석유 지대로 얻은 수익으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제조업은 오히려 후퇴했기 때문이다. 셋째, 산업노동계급이 성장하지 못했고, 그 대신 석유와 관련된 상업 부문과 전문직 분야가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했다. 이 때문에 석유 부문의 성장의 수혜자이면서 석유 산업과 잠재적 적대 관계에 있는 도시 중산 계급과 노동 계급이 등장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 이 두 집단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 부정과 불평등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비센테 고메스 정권은 ‘석유 씨를 뿌리는 것’(to sow the oil)을 근대화 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즉 석유에서 얻은 수익을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사용한 것이다. 국가를 마치 개인의 대농장(hacienda)처럼 다스렸던 비센테 고메스는 석유 씨를 뿌림으로써, 한편으로는 기존 카우디오의 권력을 제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첫 번째 마술사가 되었다.

비센테 고메스 사후, 권력은 군부로 넘어갔다. 군부는 범질서 유지를 우선으로 삼으면서 석유 수출국의 우위를 최대한 활용했다. 외국기업의 석유 개발 조건을 채굴권에서 소득세로 바꾼 것도 군부 정권이었다. 이 시기에 로물로 베탄쿠르(Rómulo Betancourt)가 중심이 된 1928년 세대는 1941년 민주행동당(Acción

Democrática: AD)을 창당했다<sup>2)</sup>. 베네수엘라 정치에서 민중(pueblo)이 처음으로 중앙 무대에 등장한 것은 민주행동당이 민중의 당(partido del pueblo)임을 내세우고 일부 소장파 군인들과 함께 군부 정권을 퇴장시킨 1945년이였다. 그리고 민주행동당의 맞수인 기독교민주당(Comité de Organización Política Electoral Independiente, 약자로 COPEI라고 표기한다.)이 창당된 것도 이때였다. 민주행동당이 1947년 베네수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보통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당 정치가 합법화되었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된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므로써 최초의 3년간의 정당 지배는 막을 내렸다. 군부가 내세운 마르코스 페레스 히메네스는 강압적인 독재 정치를 자행했다. 석유산업노조가 해산되었고 국립대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공산당의 활동이 금지되었다. 정국을 수습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페레스 히메네스는 물리적 근대화를 추진했다. 그는 모자 속에서 고속도로, 호텔, 석유화학공장, 대규모 공공사업 등을 끄집어냈다. 그러나 미국과 냉전 연대를 형성하고 반공을 구실로 민주행동당을 해산시키려고 했던 페레스 히메네스는 또다시 군부 쿠데타(1958)를 통해 축출되었다. 두 번째 마술사는 이렇게 정치무대에서 퇴장했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폰토 피호<sup>3)</sup> 체제는 3년간의 정당 지배와 그 후 10년간의 군부 독재의 교훈에서 탄생했다. 폰토 피호는 민주행동당(AD)과 기독교민주당(COPEI), 그리고 군부의 역할을 분담하는 협약이었다. 양당은 선거 절차를 준수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 권력을 나누며, 석유 수입은 모든 주요 경제 집

2) 1928년 세대는 비센테 고메스 독재에 저항한 학생운동의 주역들을 가리킨다. 로물로 베탕쿠르는 주역들 중 한 명이다.

3) 폰토 피호(Punto Fijo) 협약은 1958년 베네수엘라의 주요 정당(민주행동당, 기독교민주당, 민주공화연합당) 간에 맺어진 정치적 협약이다. 폰토 피호 협약을 통해 정당 지도자들은 그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고 민주 정치 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폰토 피호는 라파엘 칼데라의 집이 있었던 지역 이름이다.



단에 골고루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중립을 지키는 대가로 군부의 처우를 개선하고, 과거 행위에 대해 전면적 사면을 부여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를 대중적으로 인정하기로 약속했다. 경제적으로는 정부의 최소 개입 원칙을 세움으로써 정치와 경제는 별개의 영역이 되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공산당은 푼토 피호 협약에서 제외되었다. 푼토 피호 체제의 정점은 1974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정권 시기였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생산량을 줄이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베네수엘라는 갑자기 1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안드레스 페레스는 석유 부문 소득세를 63.5%에서 70%로 올리고 국영석유회사(PDVSA)를 설립해 석유를 국유화했다. 정치는 흠잡을 데 없는 민주주의로 평가 받았고,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고 간 유가 상승은 베네수엘라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으며, 군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 베네수엘라는 모든 면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었다. 안드레스 페레스는 ‘위대한 베네수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우리가 세계를 바꿀 것이다!”라고 외쳤다. 세 번째 마술사는 영광스럽게 퇴장했다.<sup>4)</sup>

### 3. 신기루 사라지다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 아니라 마술사의 눈속임이었음이 드러난 것은 영광스럽게 퇴장했던 안드레스

4) 안드레스 페레스는 국제정치 부문에서도 지도자로 부상했다. 키신저와 닉슨의 냉전 전략에 거리를 두었고, 쿠바와 국교를 복원했으며, 칠레와 니카라과의 반공 독재를 비판했다. 또한 카터 행정부의 파나마운하 협상을 지원했고, 멕시코 대통령과 공동으로 라틴아메리카 경제 및 과학 분야 협력을 위한 위원회를 창설했다. 퇴임 후에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부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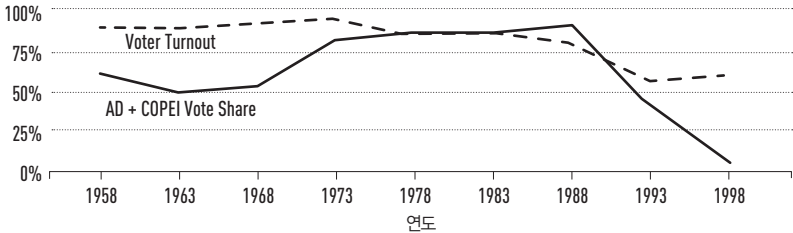
페레스가 두 번째로 무대에 등장하면서였다. 무대에 등장한 안드레스 페레스는 국가 주도의 발전이 사실은 신기루에 불과했으며 시장주도의 근대화가 진짜 현실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카라카스에서 벌어진 유혈사태였다. 폰토 피호 체제는 석유 국가의 토대 위에 세워진 허위의 계급 동맹이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 비센테 고메스로부터 페레스 히메네스를 거쳐 안드레스 페레스에 이르는 동안 겪었던 세 번의 변곡점은 부분적 단절이었을 뿐 근본적으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상 카라카스 유혈사태는 1970년대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베네수엘라를 ‘사우디-베네수엘라’로 불렀던 후안 파블로 페레스 알론소는 과도한 석유개발, 무절제한 정부 지출, 비석유 부문의 개발 경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발이라는 신기루의 허황함을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앞으로 10-20년 뒤에 베네수엘라는 석유 때문에 망할 것이다. 석유는 악마의 배설물이다.”

비센테 고메스 사후 등장한 군부 정권을 퇴장시켰던 민주행동당의 쿠데타 이후 정치 세력들은 권력의 정당성을 민중을 위한 혁명으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구엘리트와 신엘리트 간의 결탁이 이루어졌고, 그들은 타락한 권력을 나눠가졌다. 그 과정에서 민중은 민주주의의 주인공이 아니라 수사적 장식으로 변질되었다. 민중은 마술사가 꺼내주는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어린 아이로 취급되었다. 거의 반세기 동안의 폰토 피호 체제가 끝났을 때 민중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 주변으로 밀려나가거나 폭력적 억압의 대상이 되었다. 안드레스 페레스가 국제통화기금의 처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1980년대 경제위기는 마술사가 더 이상 모자에서 꺼낼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을 의미했다. 전통적 정당체제는 붕괴되었고, 석유에 의존한 과도적 발전 모델은 시효가 소멸되었다. 텅 빈 모자를 쓴 안드레스 페레스는 1993년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 4. 또 다른 변곡점, 차베스의 등장

차베스는 20세기 베네수엘라의 역사적 형성과 정치 문화의 토양-오일 달러를 뿌리는 카리스마를 갖는 지도자와 국가가 보여주는 현란한 미술에 현혹된 사회-에서 등장했다. 차베스가 볼리바르 혁명을 내세우면서 등장했을 때, 베네수엘라는 신기루가 사라진 현실 속에 두 개의 진영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정치적 담론은 양극화되어 있었다. 민중은 민주주의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없었던 것임을 깨달았다. 정치에 환멸을 느낀 민중은 전통적 양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한 라파엘 칼데라(Rafael Caldera)를 선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sup>5)</sup> (폰토 피호 체제를 지탱했던 양당제는 사라졌지만 모순적 정치 문화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여전히 미술사 같은 지도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임 대통령들이 당파적 이데올로기, 집단적 특권, 개인적 이해관계에 빠져있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는 없었다. 반면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 또한 국가가 보여주었던 현란한 미술의 매력을 쉽게 잊을 수 없었다.)

| 그림 2 | 베네수엘라 주요 정당의 부침(1958년~1998년)



자료 | Jennifer McCoy and David J. Myers (eds.), *The Unraveling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Venezuel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6.

5) 라파엘 칼데라는 1928년 세대의 일원으로 비센테 고메스의 탄압을 피해 로물로 베탕쿠르와 함께 망명을 떠났다가 돌아왔다. 폰토 피호 체제에서 기독교민주당(COPEI)의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재임: 1969년~1974년), 안드레스 페레스가 몰리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신기루가 사라진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가 본 것은 민중이었다. 민중은 절반은 현란한 미술에 현혹되어 있었고, 절반은 국민이라는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있었다. 그러나 카라카스 유혈사태 이후 민중은 조직되기 시작했다. 차베스는 민중의 힘을 이용했고, 민중의 힘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석유국가였다. 차베스도 미술사의 역할을 포기할 수 없었고, 모자 속에서 무엇인가 꺼내어 보여줘야만 했다. 그러나 그가 모자 속에서 꺼낸 것은 이전의 미술사들이 보여준 것과는 다른 것들이었다. 첫째, 차베스는 시효가 지나버린 과두제 발전 모델 대신에 사회복지를 끄집어냈다.

비센테 고메스의 통치 시기부터 라파엘 칼데라에 이르기까지 처방은 달랐지만 베네수엘라에 대한 진단은 경제성장을 내세운 근대화였다. 그러나 결과로 드러난 것은 농업 부문의 황폐화와 산업 부문의 심각한 불균등 발전이었다. 차베스는 더 많은 발전이나 더 많은 근대성 대신에 민중이 중심이 되는 다른 종류의 발전, 다른 종류의 근대성을 주장했다. 둘째, 차베스는 통합 대신에 정의를 끄집어냈다. 차베스 이전에 베네수엘라는 내적 차이가 최소화되고 공동된 가치가 강조되는 포용적인 국가공동체라는 환상이 지배했다. 즉 권력을 독점한 대통령이 오일 머니를 사용해 강하고 통합된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베네수엘라를 표방해왔다. 그러나 차베스는 특권을 누리는 내외 집단과 주변화되고 하위주체화된 민중을 분명히 구분했다. 적과 동지의 정치적 이분법은 반차베스 진영의 쿠데타(2002년), 국영석유공사가 주축이 된 자본파업(2002년~2003년), 대통령 소환투표(2004년)를 차례로 겪고 재선에 성공했던 2006년 이후 강화되었다. 셋째, 차베스는 자본주의 대신에 '21세기 사회주의'를 끄집어냈다.

## 5. 차베스와 민중: 참여적이고 주체적인 민주주의

1998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차베스는 온건한 개혁가였다. 그해 선거에서 차베스가 내놓은 정치적 제안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1958년 폰토 피호 체제 이후 권력을 유지해 온 지배엘리트 집단을 몰아내자는 것, 둘째, 만연해 있는 부패를 중식시키자는 것, 셋째, 헌법 개정을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참여적이고 주체적인 민주주의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안은 차베스 개혁이 이루어야 할 목표라기보다는 차베스를 등장시킨 원인이었다. 세 번째 언급한 1999년 제헌헌법은 차베스의 첫 번째 임기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제헌헌법의 핵심 원리는 참여적이고 주체적인 민주주의이다. 또한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이 명시되었으며 국가가 경제를 포함한 사회정책의 규제 중심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탄화수소, 특히 석유가 국가의 소유임을 분명히 밝혔고, 민중 참여 메커니즘으로 시민의회 설치 조항이 포함되었다. 경제개발계획은 협동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내생적 발전과 민중 경제(popular economy)의 틀 안에서 민중 부문에 의한 자립경제와 자립행정의 원리를 명시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대규모의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토지 및 지역경제와 관련된 조직뿐만 아니라 공공정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차베스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2001년~2006년) 동안 직접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르는 정치적 참여의 통로들이 마련되었다.<sup>6)</sup> 직접 민주주의의 형식들은 공공정책의 구상과 경영에 민중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메커니즘은 수도, 가스, 전기 같은 정책 분야에 설치된 기술위

6) 엄밀하게 말하면 차베스의 첫 번째 임기는 1999~2001년이다.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된 차베스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하고 제헌의회를 소집했다. 제헌 헌법은 1999년 12월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되었다. 차베스는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2000년 선거에서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원회였다. 공동체 조직과 국영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위원회는 가난한 도시 주민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문제를 해결했다. 잘 알려진 또 다른 사회 정책 기구는 사회적 미션(social missions)이다.<sup>7)</sup> 사회적 미션은 보건, 교육, 고용, 식품 보급 분야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고 빈곤과 실업을 감소시키는 면에서도 크게 기여했다.<sup>8)</sup> 주체적 참여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사회적·경제적 배제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다.<sup>9)</sup> 이런 맥락에서 차베스 첫 번째 임기에 양분된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의 정치적 의도였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지난 30~4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신자유주의 개혁이 가장 먼저, 가장 강도 높게 적용되었으며, 가장 먼저 해체되고 있는 지역임을 염두에 둔다면 차베스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정책의 방향성을 일국적 차원에 한정시켜 말할 수 없다.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진 베네수엘라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객관적인 현실이었다.

두 개의 베네수엘라로 몰고 간 것은 오히려 반차베스주의자들이었다. 차베스에 대한 반차베스 진영의 공격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2002년 4월에 발

7) 미션은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 그중에서 교육에 해당하는 미션은 미션 로빈슨(문맹퇴치 교육 프로그램), 미션 로빈슨II(글을 깨친 사람들을 위한 초등교육 프로그램), 미션 리바스(중등교육 프로그램), 미션 수크레(중하계층과 빈곤층을 위한 대학교육 프로그램)이다. 2005년 유네스코는 베네수엘라를 문맹이 사라진 국가로 선언했다. 보건 프로그램인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를 통해 의료시설이 7,873개 증가(2005년~2012년)했고, 의사 숫자는 10만 명 당 20명(1998년)에서 80명(2010년)으로 증가했다. 유아사망률은 천 명당 19.1명(1999년)에서 10명(2012년)으로 줄었고, 기대 수명은 72.2세(1999년)에서 74.3세(2011년)로 늘어났다.

8) 실업률은 15.2%(1998년)에서 6.4%(2012년)로 감소했고 4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최저임금은 16달러(1998년)에서 330달러(2012년)로 증가했는데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는 인구가 65%(1999년)에서 21.1%(2012년)로 크게 감소했다. 노동 시간은 6시간/일, 36시간/주로 줄어들었다. 1인당 소득은 4,100달러(1999년)에서 10,810달러(2011년)로 증가했다.

9) 베네수엘라 빈곤층은 42.8%(1999년)에서 26.5%(2011년)로 감소했고 극빈층은 16.6%(1999년)에서 7%(2011년)로 감소했다.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0.46(1999년)에서 0.39(2011년)로 감소했는데 유엔 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생한 반차베스 쿠데타 실패는 베네수엘라 전체에 적과 동지의 모습을 뚜렷하게 노출시켰다. 그리고 2002년 말부터 2003년까지 계속된 자본과업이 실패로 끝나면서 석유산업이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sup>10)</sup> 국영석유회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던 18,000명의 중상층 관리자들을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2004년 대통령 재선임 투표에서 차베스가 승리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대한 베네수엘라 민중의 반격이었다. 즉 민주주의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비판주의를 극복하고 민중이 차베스를 재선임했기 때문이다.

## 6. 차베스의 두 번째 임기(2007~2012)와 ‘21세기 사회주의’

차베스의 두 번째 임기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 가지는 국내적 상황으로 차베스 정부에서 성장한 민중운동과 정부와의 관계이고, 다른 한 가지는 1998년 차베스 등장 이후 남미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킨 좌파 벨트의 형성이다. 그러나 국내적 상황과 국제적 상황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크게 주목하지 않지만 1998년은 21세기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행보를 가름할 두 개의 정치적 사건이 발생한 해였다. 하나는 차베스의 대통령 당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2차 미주정상회의였다.

미주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10)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이 국유화했던 석유산업에 대한 통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 석유개발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해당 기업의 경영진에게 주어졌다. 석유개발 정책은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국영석유회사를 재민영화하는 것이었다.

Americas: FTAA) 결성이 주된 의제로 등장했고 늦어도 2005년까지 협정을 마무리하기로 합의되었다. 차베스는 제3차 미주정상회의(2001년 4월, 캐나다 퀘벡)에서 공개적으로 미주자유무역지대협정 체결을 반대했지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미주자유무역지대의 결성은 미국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차베스의 뒤를 이어 브라질의 룰라(2002년),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2003년), 우루과이의 바스케스(2005년),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2006년), 칠레의 바첼레트(2006년), 에콰도르의 코레이(2007년), 파라과이 루고(2008년)가 연속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차베스는 룰라와 키르치네르와 공조를 통해 제5차 미주정상회의(2005년 11월, 아르헨티나의 마르 델 플라타)에서 미주자유무역지대 협정을 최종적으로 결렬시켰다. 차베스 등장 이후 남미 정치 지형의 변화를 '남미 좌파 도미노'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차베스의 두 번째 임기 초기는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복잡했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했다. 사회적으로는 차베스의 주도로 지지기반의 조직화와 동원을 위로부터 추진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과 자율적 민중운동 사이에 커다란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경제정책은 급진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국가자본주의와 사적자본주의가 불안정하게 뒤섞여 있어서 자본가의 지지도 확신할 수 없었고 개혁을 밀고 나갈 수도 없는 불안한 상황이 증가했다. 내생적 발전과 민중 경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정부가 해외자본보다 국내자본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밝혔지만 거대기업이 사회적 경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규정하지 못했다. 국제적으로는 미주자유무역지대를 대신할 새로운 라틴아메리카 통합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차베스는 2005년 1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열린 5차 세계사회포럼에서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21세기 사회주의는 미래의 전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반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자본주의 혹은 포스트자본주의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이슈가 되었다. 차베스에 따르면 21세기 사회주의는 20세기 사회주의와 달랐다. 그러나 21세기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대신에 구소련이나 동유럽 국가들, 또는 쿠바의 사회주의와 다르다는 것만 언급했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전 세계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렇다고 소련의 경우처럼 국가자본주의에 의지할 수도 없다. 우리는 명제로서, 프로젝트로서, 나아가야 할 길로서 사회주의를, 새로운 종류의 사회주의를, 기계나 국가를 앞세우기보다 인간을 앞세우는 인간적 사회주의를 다시 불러내야 한다(Chávez 2006).

차베스는 200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대안 모색 국제콘퍼런스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주의의 토대는 연대, 형제애, 사랑, 정의, 평등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볼리바르 혁명이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고, 사회주의적 행로를 따라 연대, 형제애, 사랑, 정의, 자유, 그리고 평등에 기초하는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Wilpert 2006에서 재인용).

여기서도 차베스는 새로운 사회주의를 명료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회주의는 미리 결정된 모델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자본주의 양식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라는 모호한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 양식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의 포스트자본주의와 자본주의로부터 이행(transition)을 의미하는

새로운 사회주의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 21세기 사회주의는 새로운 사회조직의 원리이면서 새로운 문명관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규합 개념(organizing concept)인 셈이다. 포스트자본주의의 ‘포스트’는 자본주의 다음에 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아닌 것, 자본주의 원리에 포섭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외부이다. 따라서 포스트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특징을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경쟁적인 시장을 통한 분배와 교환, 자본주의를 통제하는 국가로 규정한다면, 차베스 첫 번째 임기에 볼리바르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정책을 포스트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여러 가지 형태의 협동조합, 공동경영(co-management), 국가소유/경영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변화시켰다. 협동조합은 1998년 약 800개에서 2005년 10만 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성인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150만 명 이상이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셈이다. 정부는 신용 공여, 협동조합 생산물품의 우선 구입, 훈련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동조합을 지원했다. 공동경영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국가소유 기업(통신, 항공, 석유화학 등)을 설립해 국가소유/경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생산 기업의 등장은 단지 베네수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내생적 발전과 미션 프로그램 등은 경쟁적 시장을 통한 분배와 교환을 변화시키는 정책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민주의 정책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국내보다 국제 무역에서 더 적절한 예를 찾을 수 있다. 미주자유무역역대 설립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차베스가 설립한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대안’(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s Américas: ALBA)은 자유무역(free trade) 대신에

공정무역(fair trade)을 지향한다.<sup>11)</sup>

셋째, 국가가 자본주의를 통제한다는 것은 거버넌스가 사적 이익에 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석유국가인 베네수엘라에 핵심적인 사항이면서 소위 복지국가의 모순과도 관련되어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두 명의 주인-지지자들과 자본 권력-을 섬겨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석유를 굶어진 마술사의 나라 베네수엘라의 20세기 역사는 차베스의 등장으로 또 다른 변곡점에 이르렀지만 이러한 딜레마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딜레마를 돌파하기 위해서 차베스는 석유산업의 국유화, 참여적이고 주체적인 민주주의, 민군연합(civil-military union) 정책을 동시에 실천했다.<sup>12)</sup> 국유화를 통한 막대한 석유 수익은 정부가 외국 자본의 이탈이나 투자 기피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부가 투자 주체가 되고, 세금 정책을 추진하며, 규제 정책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민주주의 정책이었다. 참여적이고 주체적인 민주주의는 볼리바르 혁명과 21세기 사회주의를 절합시키는(articulate) 핵심이다.

11) ALBA는 2006년 볼리비아가 회원국이 되면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름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민중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민중무역협정(ALBA-Tratado de Comercio de los Pueblos, ALBA-TCP)'으로 바꾸었다. 더 나아가 차베스는 'ALBA-TCP 정신에 입각한 사회운동협의체(Consejos de Movimientos Sociales de ALBA-TCP)' 결성을 사회운동단체에 제안했다. 지역통합이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국가권력의 역학관계에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제안이다.

12) 군-민 연합은 차베스의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역사적으로 라틴아메리카 군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세력을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왔다. 차베스는 군대가 시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군대를 사회적 현실과 격리된 집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차베스는 모택동의 말을 인용해 군대와 시민은 물고기와 물의 관계와 같다고 말했다. 차베스는, 한편으로는 대민사업과 미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군대와 시민의 거리를 없애려고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을 예비군으로 등록시켜 군대와 가깝게 만들었다. 이러한 조치는 시민사회를 병영화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우리가 제기하는 사회주의는, 누군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반목하지 않는다. 지나간 시대의 사회주의는 우리가 제기하는 사회주의와 달랐다. 다른 현실, 다른 상황이었다.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 아니다. 우리가 제기하는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민중 민주주의(*democracia popular*), 참여 민주주의(*democracia participativa*), 주체적 민주주의(*democracia protagónica*)이다(Chávez 2006).

이런 맥락에서 2006년에 의회를 통과한 주민자치위원회(*Consejo comunal*) 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06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한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전략에 대해 밝히면서 다섯 개의 엔진에 대해 언급했다. 첫 번째 엔진은 차베스 집권 이전에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었던 수권법이었다. 수권법은 의회가 일정 기간 동안 대통령에게 입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엔진은 통합적이고 깊이 있는 개혁이다. 차베스는 개혁을 통해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는 헌법조항을 바꾸고자 했다. 세 번째 엔진은 ‘도덕과 계몽’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될 도덕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 교육으로 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지역기반의 조직에서 실시된다. 네 번째 엔진은 차베스가 ‘권력의 지리학’(*geografía de poder*)이라고 부른 것으로, 도시와 행정구역의 체제를 재편하고 균형 발전시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엔진은 지역사회의 힘을 혁명적으로 폭발시키는 주민자치위원회이다. 다른 안데스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베네수엘라의 사회운동의 역사는 활발하지 않았다. 카라카스 유혈 사태 이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동원, 특히 전투적인 사회적 소요 사태가 꾸준히 증가했다. 카라카스 사태로부터 차베스가 집권하

기 전(1989년~1999년)까지 시위가 증가하면서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다양화되었는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 사회적 시위가 거세지면서 빈곤퇴치 어젠다가 만들어졌고, 지역마다 사회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조직들이 결성되었다. 차베스 1기 집권 시기에도 다양한 형태의 집단적 행동이 계속되었고, 정치적 동기에 따라 사회운동의 폭은 더 확장되었다. 차베스의 볼리바르 혁명을 지지하는 민중 모임은 온건한 형태의 사회운동과 전투적인 형태의 시위가 뒤섞여 있었다. 중간 계급과 상위 계급은 전투적인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베네수엘라 사회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점점 더 양극화되었다. 친차베스 진영과 반차베스 진영의 대립은 2004년까지 특히 격렬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차베스 집권 2기 동안 민중권력을 좀 더 조직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조치였고, 민중이 직접 민주주의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었다. 지금까지 26,000개 이상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전 주민의 3분의 2가 위원회에 가입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된 목표는 사회적 서비스와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공간적·정치적 조직을 새롭게 재편함으로써 차베스가 ‘권력의 지리학’이라고 이름 붙인 네 번째 엔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진전이면서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였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새로운 참여의 공간을 열었고, 참여를 통해 민중이 조직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집단적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은 민중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조건을 만들어주었지만 심각한 한계도 노출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서 노출된 한계는 무엇보다도 민중 조직이 너무 지역적이고, 그들의 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중간 수준의 조직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되어 국가를 상대로 자율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심각한 한계로 드러났다. 차베스가 말했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인 민중 주권의 실천인가,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정치적 후견주의(clientelismo)의 공간에 불과한 것인가? 주민자치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공간인가, 폄하된 의미의 포퓰리즘의 공간인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율적인가, 준국가적(para-statal) 공간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는 두 가지 경향을 보인다.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기술적 후견주의의 공간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중 권력이 성장하는 공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기술적 후견주의란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부의 자원을 관리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으로 정부나 정당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포섭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반면에 자치를 주장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부 권력과 갈등을 빚을 우려가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운 주체성을 확립하거나 대안적 사회모델의 구축에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석유국가이며 미술사의 정치문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민자치위원회는 민중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 7. 21세기 사회주의=(?)=민주주의

198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국가주의=전체주의’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카라카스 유혈 사태로부터 시작해 안데스 국가들의 원주민운동, 멕시코 사파티스타 봉기, 1970년대부터 시작된 브라질 무토지농민운동, 아르헨티나 피케테로스(piqueteros) 시위, 콜롬비아 아프리카계 주민들의

사회운동 등이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지형을 바꿔 놓은 이후 ‘민주주의=자유주의=자본주의’라는 등식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차베스는 ‘사회주의=국가주의=전체주의’ 대(對) ‘민주주의=자유주의=자본주의’라는 이원론적 대립을 비판하고 ‘21세기 사회주의=(?)=민주주의’를 제시했다. ‘21세기 사회주의=(?)=민주주의’ 등식에서 중간 항(?)이 누락되면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 다르지 않다.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를 20세기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와도 차별화하는 것은 중간 항(?)이다.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를 선언하면서 경제발전 모델로서 제3의 길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중간 항(?)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차베스는 아마도 ‘덜 국가중심적이고 보다 더 다원적인’ 사회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차베스는 민중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돌려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페트로-포퓰리즘’, ‘선출된 전체정치(elected autocracy)’, ‘못돼먹은 민주주의(rogue democracy)’로 비난받았다. 이러한 비난이 차베스의 개혁을 끊임없이 흔드는 베네수엘라 국내외 자본과 미국으로 대변되는 제국주의의 공세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의 또 다른 근거는 차베스가 석유국가의 마술사였다는 점이다.<sup>13)</sup> 다시 말해, 차베스가 원했던 것은 ‘21세기 사회주의=덜 국가중심적이고 더 다원적인 사회=민주주의’라는 등식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국가주의)=21세기 사회주의=(?)=민주주의=(자본주의)’라는 등식으로 작동하고/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칠레의 언론인이자 작가인 에르네스토 카르모나(Ernesto Carmona)가 지적하듯이, 차베스의 혁명과 21세기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도 아니고 수출될 수

13) 총수출에서 1차 산품, 탄화수소, 광물과 파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율(%)

국가	1차 산품/총수출	탄화수소/총수출	광물과 파생산품/총수출
베네수엘라	92.7	89.7	0.4

자료 | CEPAL, 2009.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 사회 정의, 볼리바르 사상, 마르크스주의, 피델 카스트로 사상, 아엔데의 유산이 베네수엘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맥락과 뒤섞인 복합적 산물이다. 여기에 엄청난 활력과 단호한 성격, 명확한 정치적 비전을 가졌던 차베스의 카리스마와 이에 “우리 모두 차베스다!”(¡Todos somos Chávez!)는 함성으로 화답한 베네수엘라 민중의 열렬한 지지가 있었다. 차베스 이후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월러스틴이 논평했듯이, 베네수엘라가 오늘날 처해 있는 내부적 힘의 균형과 좀 더 큰 범위에서의 지정학적·문화적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역사적 자본주의와 근대문명의 위기를 알리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차베스의 혁명은 베네수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찰해야 할 미션이라는 점이다.



## 참고문헌

- 마르가리타 로페스 마야. 2008. 「오늘날의 베네수엘라: 참여적이고 주체적인 민주주의인가?」. 리오 패니치·콜린 레이스 편. 『세계의 발화지점들: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 이고성 옮김. 필맥, 269~299.
- 마르타 아르네케르. 2008. 「베네수엘라에서 오가는 공세와 반격」. 리오 패니치·콜린 레이스 편. 『세계의 발화지점들: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 이고성 옮김. 필맥, 301~318.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편). 2012. 『라틴아메리카의 전환: 변화와 갈등(상)』. 한울.
- 에릭 허쉬버그, 프레드 로젠 외. 2008.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김중돈·강해정 옮김. 모티브북.
- 이성형. 2009. 『대홍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 그린비.
- Cammack, Pual. 1986. “Redemocratization: A Review of the Issues.”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4: 39~46.
- Cardenal, Ernesto. 2004. “La Venezuela desconocida.”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http://alainet.org/active/6224&clang=es>
- Chávez, Daniel. 2013. “The revolution begins today.”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March 7.  
<http://alainet.org/active/62256&clang=es>
- Chávez, Hugo. 2006. “Discurso sobre el partido único.” *Rebelión*. 15 de diciembre.  
<http://www.rebellion.org/noticia.php?id=43422>
- Cores, Hugo. 2006. “Venezuela bolivariana y la integración de América Latina.”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19 de junio.  
<http://alainet.org/active/11970&clang=es>
- Coronil, Fernando. 1997. *The Magical State: Nature, Money, and Modernity in Venezuel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llner, Steve(eds). 2007. *Venezuela: Hugo Chávez and the Decline of an 'Exceptional Democracy.'*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 Escobar, Pepe. 2012. “Why Hugo Rules: Washington should get real and understand why Venezuela prefers Chavez.” *Aljazeera*.  
<http://www.aljazeera.com/indepth/opinion/2012/10.2012108131627841943.html>

- Ferrari, Sergio. 2013. "Chávez devolvió la dignidad a los excluidos." *Con Nuestra América*. 9 de marzo.  
<http://www.connuestraamerica.blogspot.kr/2013/03/chavez-devolvio-la-dignidad-los.html>
- Santos, Boaventura de Sousa. 2013. "Chávez, el legado y los desafíos."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8 de marzo.  
<http://alainet.org/active/62296&lang=es>
- Skidmore, T., S. Peter, and J. Green. 2010. *Modern Lat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efanoni, Pablo. 2012. "Posneoliberalismo cuesta arriba: Los modelos de Venezuela, Bolivia y Ecuador en debate." *Nueva Sociedad* 239: 51~64.
- Wallerstein, Immanuel. 2013. "After a Charismatic Leader, What?" *Agence Global*. March 15.  
<http://www.agenceglobal.com/index.php?show=article&Tid=2988>
- Weisbrot, Mark. 2013. "Chávez's Legacy."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 March 6.  
<http://alainet.org/active/62198&lang=es>
- Wilpert, Gregory. 2006. "The Meaning of 21st Century Socialism for Venezuela." *Venezuela Analysis*. July 11.  
<http://www.venezuelanalysis.com>.